

## 『신비의 우화』

*La Fable Mystique, vol 1, XVIe-XVIIe Siecle*

Michel de Certeau, Paris: Editions Gallimard, 1982<sup>1)</sup>

박상훈

예수회

우리는 흔히 ‘내면의 탐색’ 혹은 ‘내성(內省)’을 통해 ‘참된 자아’에 도달하는 영적 경험을 ‘영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신비주의는 내면성을 가장 철저한 방식으로 구현한 영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특징은 순전히 사적이고 내면적인 삶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우리 내면에 숨겨진 ‘참된 자아’를 파내야 혹은 치유해야 영성에 이른다는 견해는 사실 허구이다. 원래부터 ‘거기에’ 있는 자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아는 처음부터 인간의 소통과 상호작용, 역사와 환경의 산물이다. 내면과 외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욕구하고 행위하는 존재인 한, 서로 기대어 긴장과 창조 의 힘을 동시에 만들어 내는 관계이다. 내면을 갈라지게 하는 외부 세계가 문제가 아니다. ‘내부로부터’가 아니라,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사는 삶이 문제이다.

신비가들은 내면과 외면, 관상과 행동의 구획을 무너트리며, 급진적인 방식으로 하느님에게 나가는 길을 모색했다. 이들은 통념과는 다르게, 정치와 공공의 세계에 깊게 들어갔다. 미셸 드 세르토에게 신비주의는 사회적 실천이고, 그가 보여주는 신비가들의 세계

---

1) 본 서평에서는 영어 번역본, *The Mystic Fable, Vol 1,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서평에서 사용되는 『신비의 우화』의 페이지는 영어 번역본의 페이지를 가리킨다.

는 놀랍도록 체제 전복적이다. 『신비의 우화』는 16-17세기 유럽의 종교적 변화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탐색한다. 종교는 따로 고립되어 변화하지 않는다. 16세기는 서양 근대의 여명이다. 이때 본격적으로 지식 체계가 식민지화 (혹은 제국주의화) 하고 자본주의가 급속히 확장되며 착취를 최대화하도록 과학 기술이 조직된다. 이에 따라 드 세르토가 ‘기록 경제학(*scriptural economy*)’이라 부르는 인쇄와 출판 산업이 팽창하면서 말보다는 글이 근대의 표지가 된다. 이 세계는 더 이상 하느님이 하시는 ‘말’로 파악될 수가 없었다: “세계는 불투명해지고 대상화 되고, 원래의 발화자 [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288). 신비가 혹은 마귀들린 사람들의 비명과 외침은 세계 질서가 글이 아니라 말이라는 점을, 시대의 표지를 거스르면서 드러낸다.

『신비의 우화』는 국민 국가의 등장과 같은 정치 사회적 변화가 “부패한 제도 안에서 이미 들리지 않게 된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찾으려는 노력과 평행을 이룬다”(154)는 점을 꼼꼼하고도 다층적으로 제시한다. 비슷하게, 17세기가 배경인 또다른 저작 『루딩의 마귀들림』 (1970)은 프랑스 루딩의 울술라 수도원에서 ‘마귀에 사로잡힌’ 수녀들의 ‘목소리’를 통해 종교 전쟁, 역병, 근대 국가의 출현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고통과 불안을 마치 법정 스티븐처럼 긴장감 있게 그려낸다. 두 저작에서 신비기들은 “말할 수 없는 분의 침묵과 이름 지을 수 없는 분의 이름”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드 세르토에게 신비주의는 ‘바벨탑에 대한 저항’이다. 신비주의는 언어와 소통이 교착에 빠진 뒤 ‘공동의 언어’를 찾기 위해 나선 탐색이며, 흐트러지고 영클어진 인간의 언어 대신 ‘천사들의 언어’가 발명된 것이다. 신비주의의 언어는 이 ‘상실’에 대한 ‘역사적 은유’이며, 언어의 상실뿐만 아니라 의미의 객관적 표지와 심지어 하느님마저 말끔하게 사라져 버린 듯한 세계에 대한 ‘대응’이다.

드 세르토는 1951년 프랑스 예수회에 입회해서 스승인 앙리 드 튀박을 만났다. 수련이 끝나고 드 튀박이 가르치고 있던 리옹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때부터 드 튀박이 주도하던 ‘르수르스망(*ressourcement*: 원전으로 돌아가자)’ 기획에 참여한다. 드 세르토는 그 후 그리스도교 전통에 대한 역사 연구로 본격적인 저작 활동을 시작했는데, 저술의 범위는 그보다 훨씬 넓어 인류학, 정신분석, 철학, 도시 연구, 문화 이론에까지 미친다. 특히 역사학과 문화 이론에서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연구를 많이 남겼는데, 드 세르토 자신은 스스로를 ‘신학자’로 생각했다고 한다. 드 튀박은 신학 전체의 과제를 그리스도교의

‘재발견’으로 보고, 고대와 중세 그리스도교의 일차 문헌들에 대한 정밀하고 엄격한 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고도로 정련된 문헌학, 고고학, 역사학의 방법이 동원 되었다. 물론 드 뤼박이 이 작업을 학문적인 호기심에서 한 것은 아니다. 근본 물음은 어떻게 그리스도교의 과거가 현재와 연관되며, 원전의 이해를 넘어 현재의 문제와 어떤 연속성을 지닐 수 있는가였다. 그러나 드 세르토는 역사의 연속성 자체를 회의적으로 봤다. 대신 “과거는 우리에게 낯설다”. 과거는 현재의 역사적, 영성적, 신학적 필요와 요구에 의해 끊임 없이 모호해진다. 과거는 ‘타자’이다. 그리스도교 역사가가 해야 하는 일은 과거를 순치해서 박물관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다”(9).

드 세르토에게 역사가의 언어는 연속성이나 안정이 아니라 추방, 상실, 향수(鄉愁), 애도이다. 신비가들의 문헌은 “우리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와 관련된 ‘노스텔지어’의 언어를 지금 우리의 세계로 끌고 들어온다. 이 글쓰기는 향수가 가능한 어떤 공간을 창조하고 유지한다”(2). 이 공간을 위해 신비가들이 사용하는 ‘수행 언어(*speech act*)’는 일종의 ‘전술’이다. 지배적인 담론이나 권력의 지식을 약화 시키고 혼란하게 만들어 ‘또다른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전술’은 약한 자의 언어 행위이다. 반면, 지배자의 언어는 ‘전략’을 수행한다. 권력은 타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짐겨한 독점의 장소에서 지식과 언어를 통제하고 조정한다. 이에 대해 ‘전술’의 행위는 어떤 고정된 장소 없이 언제나 타자의 공간에서 작동하고, 권력의 ‘부재’에 의해 비로소 존속한다. 신비가의 목소리는 ‘사회적 불안과 동요’를 대신하면서, 동시에 지워져 버린 타자들을 대변한다.

드 뤼박과 다르게 드 세르토는 ‘거친 신비가들’에게 깊이 빠졌다. 드 뤼박이 오리게네스, 이레네우스, 막시무스 같은 정통 교부들을 ‘원전’으로 여겼다면, 드 세르토는 다른 종류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낯설고 이중적인 성격의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웠다. 드 세르토가 호출한 신비가들은 광인이나, 방랑자, 글자 하나 모르는 현자, 멸시 받고 바보 취급 받는 수도자이다. 이들이 어떻게 사회와 종교의 경계에 서서 이 세상의 모든 ‘타자’를 대표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들이 지니는 ‘타자로서의 성격’은 기존의 권력과 특권의 중심에 도전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능력의 다른 말이다. ‘신비가의 언어’는 그래서 “항상 끊임 없이 떠나는 운동”을 표현하고 재현한다: “결핍에 대한 확실성을 지니고, 그리고 *바로 그것은 아닌 (ce n'est pas ça)* 모든 장소와 대상을 알면서, 견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신비가’이다. 신비가는 *바로 여기에 (ici)* 머물 수도 없고, *바로 이것에 (cela)* 만족할 수

도 없다”(299). 드 세르토는 이나시오 로올라,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회를 창설한 피에르 파브르, 또 17세기 예수회 신비가 장-조세프 쉬랭의 실천적 신비주의의 통찰에 따라 그리스도교의 ‘제자 직분’을 ‘끊임없이 떠나는’ 실천이라고 봤다. 이나시오의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인 헤로니모 나달이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의 거처는 ‘집이 아니라 여행’이다. 끝없이 경계 짓고, 고정된 장소를 만들려는 인간의 질긴 습속을 넘어가려는 실천이 ‘여행’이다. ‘거친 신비가들’의 삶은 안착과 경계를 넘는 ‘여행’이었다.

드 세르토는 신비가들의 이런 삶의 방식을 이나시오 로올라의 언어로 설명한다. 이나시오의 <<영성수련>>에서 하느님은 ‘마지스 (*magis*: 더 많은), 혹은 ‘셈페르 마이요르 (*semper maior*: 언제나 더 큰)’ 분이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은 이 ‘포착할 수 없는 더 큰’ 분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와 제한을 넘어갈 필요가 있다. “경계는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경계를 넘어 나아가는 것은 그 활동의 결과이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그 경계에 영향과 효과를 주는 어떤 것이 *행해져야* 한다(단지 *말해져*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그리스도교를 생각할 수 있는가?”) 드 세르토는 이 ‘계속 나아가다(*proceed*)’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단어는 원래 예수회 회헌에서 예수회원들의 삶의 방식을 묘사할 때 썼던 것이다. 즉, ‘우리의 행동 양식(*our way of proceeding*)’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방식(*nuestro modo de proceder*)’과 같은 것이다(14-17). 그래서 그리스도교 자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어서, 고정된 장소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하고 유동하는 공간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경계를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은 드 세르토의 저작 가운데 사회 과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일상 생활의 발명(*L'Invention du quotidien*), I, II』(1980-2)에서도 변주 된다. 드 세르토는 사회적 권력, 지배적인 체제가 제시하는 삶의 양식에 대해 일상에서 수행되는 저항의 생활 양식 -예컨대, 롯데월드 꼭대기 스카이 라운지에서 아래를 바라보며 사는 관음증의 생활과 골목 거리를 돌아 다니며 자신에게 맞는 물건을 사고 일을 하며 타인들과 교류하는 생활 -은 제도와 중심과는 ‘*다르께*’ 사는 삶의 공간을 확보하려 했던 신비가들의 ‘전술’과 같은 것이라 봤다.

그러니, 신비는 역사와 현실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아니다. 신비는 그 둘을 통해 매개되는 것이다. 이나시오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았듯이, 일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신비적, 초월적 성질들로 넘쳐난다. 이나시오의 ‘식별’의 핵심인 ‘관상’은 하나의 장소, 즉

현실에서 ‘언제나 더 큰 분’을 찾기 위해 일상의 ‘타자들’을 만나는 것과 같다. 드 세르토가 탐색한 신비기들은 어떤 고정된 장소에 머물지 않고, 타자와 주변에는 어떤 공간도 허용하지 않는 중심과 권위의 체제에 ‘저항’하면서 ‘다른 어떤 곳(elsewhere)’에 계시는 하느님을 확인한 사람들이었다. 신비기들은 그래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체제를 전복하며, ‘지워져 버린’ 하느님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다. 과거는 낫설고, 역사는 불확실하며,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고, 타자와의 만남은 피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죽음-승천 사건과 우리 사이의 단절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는 매번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것이 되어 간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항상 ‘다른 것’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위협스런 모험이다. 미셸 드 세르토의 『신비의 우화』는 이 모험이 사실 얼마나 매혹적인가를 보여 준 것이다.2)

---

2) 미셸 드 세르토의 저작 가운데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루핑의 마귀들림』 뿐이다. 『신비의 우화』의 중요 주제들이 수많은 역사 자료와 법정 기록물들에 대한 당대의 해석과 그것을 다시 해석한 후대의 역사 사이에 숨어 있다.